

# “통신사 갈아타자”...SKT 정보유출 우려 가입자 대거 이탈

### 고용정보·법정보험대리점 해킹 사고 발생 불안감 키워 5000만원 고객 금융 피해까지 발생...이용자 해약 사태

SK텔레콤(SKTEL)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광주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 주요 대리점마다 유심 칩을 교체하려는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우려에 따른 가입자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예약도 막통...개인정보 추가 유출 불안 =이날 광주지역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온라인 예약을 시도했지만 오전 한때 대기 인원이 12만 명에 이르면서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객들이 유심칩 교체를 서두르는 것은 유심칩 정보 유출과 함께 추가 개인정보 노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콜센터 운영업체 KS한국고용정보와 대형 법정보험대리점(GA)에서도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KS한국고용정보에서는 3만6000명의 인사정보가 유출됐고, 다크웹에서는 이 데이터가 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대형 GA 두 곳에서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 단독으로는 금융사고 가능성이 낮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와 결합할 경우 또다른 금융 피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전남 등 가입자 이탈 가속화=유심 사태로 인해 광주·전남에서도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으며, 광주·전남권에서도 번호 이동 문의가 평소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탈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 고객 대상 갤럭시 S25 모델을 5만원대에 판매하는 긴급 판촉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마음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5000만원 인출-고객 금융 피해까지 발생=SKT 고객의 금융 피해 역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부산에서는 이날 SKT사용자인 60대 A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추가 개통되고, 5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뒤 KT 계열 알뜰폰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됐고, 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씩 5차례 송금이 이뤄졌다. 경찰은 무단 개통 과정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심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한다”며 SKT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S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해나 기자 mna@kwangju.co.kr

해약에 나서는 등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SKT “유심 교체 외 SW 초기화 도입 검토”= SKT는 이날 오전 유영상 대표 등이 참가하는 임직원 대상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

책 마련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무상 유심 교체 서비스와 함께 소프트웨어 초기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 등도 발표했다. SKT 측은 이날 설명회에 대해 “구성원 대상으로

아직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기술 검토 사항이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자리였다”며 설명회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취업 트렌드 공유’ 지역 취준생 관심 폭발

### 조선이공대 ‘잡토크 콘서트’ 참여 광주·전남 인재 합동채용 설명회

광주·전남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지역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 트렌드 공유에 나서고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열린 조선이공대 ‘잡토크 콘서트’와 전남대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잡토크콘서트에서는 금호타이어와 기아,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GMAT 등이 참여해 현장 분위기와 취업 트렌드 변화를 취업 준비생들과 공유했다. <사진> 참여자들은 ▲산학협력 프로그램 가산점 여부 ▲인적성 검사 팁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필수·필수 자격증 등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전남 합동 설명회에서도 채용 담당자와 취업 준비생 간 1대 1 상담을 통해 채



용 계획·전형 등 정보를 제공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빠르게 변하는 취업 트렌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담 등을 구직자들

에게 알리는 자리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고환율 저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떨어진다

### 2029년으로 달성 전망 2년 늦춰 IMF 경고...내년엔 대만에 역전

우리나라가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 달성을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2029년으로 2년을 늦췄다. IMF는 또 당장 내년부터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653달러에서 2021년 3만7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만5563달러, 지난해 3만6129달러 등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

는 것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야 4만341달러로 4만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다. IMF는 지난해 10월 22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3만7675달러, 내년 3만9321달러를 거쳐 2027년 4만1031달러로 단숨에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봤다. 당시 2029년 전망치는 4만4347달러에 달해 현실의 절반에 불과했다(4만341달러)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이와 함께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부터 대만에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 5월 종합소득세의 달...배달라이더 등 443만명에 1조70억원 환급

### 모두채움·인적공제 안내 제주항공 피해자 등 3개월 연장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 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자·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 예상액 모두 1

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 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한다.

이 밖에도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심옥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장은 “안내 메시지가 표출되는 경우 입력한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을 한번 더 살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상도 산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때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aT, 인재양성 교육 콘텐츠·강사 인력풀 모집

### 창업·생산·수급 등 8개 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올해 농수산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콘텐츠’와 ‘강사 인력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콘텐츠 분야 상반기 모집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 모집은 8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선정 기준은 환경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는지 등이다. 우수한 콘텐츠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해당 과목의 강의 우선권을 부여받고, 오는 2026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사 인력풀 분야는 오는 11월 5일까지 모집한다. 선정 기준은 관련 분야 종사자, 현직 강사, 관

련 학위·자격증 보유자로서 교육원에서 강의가 가능한 자 등이다. 선정된 강사는 향후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인재 모집에서는 지역 먹거리, 수출, 도매시장, 푸드테크, 산지유통, 창업, 생산·수급, 디지털 전환 등 8개 핵심 분야에 최근 떠오르는 ‘팻푸드 산업’ 등 기타 영역까지 포함한다.

모집 신청은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이메일(agroedu@a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aT 누리집과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문도 aT 유통이사는 “최근 이상기후 및 다양한 트렌드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광주상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 방법 공유

### 지역 수출기업 대상 시스템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광주 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4일 상의 1층 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용욱 한국무역정보통신 원산지 관리사가 강사로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와 사용 전 준비 사항 ▲기초데이터 이해와 작성 ▲기초데이터 업로

드·오류 수정 ▲원산지 판정·원산지 증명 서류 생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20대 10명 중 4명 이상

###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쉰다”

20대 10명 중 4명 이상은 노동절(5월 1일)부터 6일간의 연휴를 모두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멤버스는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지난 11~12일 전국 2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5월 연휴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쉰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하루 혹은 이틀 출근 예정’이라는 답변은 41.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근교 나들이(21.7%), 국내 여행(13.4%) 순으로 응답했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답변은 4%에 그쳤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8.86 (+2.56)
↓ 코스닥	719.41 (-10.28)
↑ 금리(국고채 39년)	2.316 (+0.011)
↑ 환율(USD) (오후 5시 10분 기준)	1443.71 (+7.25)